



# 다리 건너 천사의 섬 '희망의 섬' 다리 났다

'천사 섬' 신안이 주민들의 육지 나들이 등 일상 생활이 자유로워지고 관광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희망의 섬'으로 부상하고 있다.

14개 읍·면으로 구성된 신안군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민 대부분이 섬이라는 취약한 교통 환경으로 간혀 살다시피 했다.

특히 청정지역 신안의 농·축·수산물들 물류 운송에도 차질이 많아 제때 거래가 이뤄지지 못해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좋은 가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군이 나서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고 안정된 물류 운송체계를 갖춰 신선도 유지와 운송비 절감으로 생산자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중부권 주민들은 목포-압해대교에 이어 압태, 자은, 팔금, 안좌의 중부권을 잇는 7224m의 우리나라 국도구간으로 최장인 천사대교가 지난 2019년 지난 3월에 개통해 육지권 생활이 이뤄졌다.

임자도 주민들 역시 지도와 증도를 잇는 임자대

신안 14개 읍·면 중 8곳 육지화 주민 생활 개선·1섬1정원 박차 세계가 찾아오는 관광명소 기대

교가 지난 3월 개통해 자유로운 육지 생활권을 누리게 됐다.

14개 읍·면 중 현재 8개 읍·면이 육지화된 가운데 비금-도초간 연도교가 건설되어 있는 비금-압태 추포 간 도로 10.4km의 공사가 39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천사대교를 잇는 압태 중부권과 이어져도 비금, 도초 주민들도 육지 생활권이 시작된다.

또 장산-안좌면 자라도 간 연도교 사업이 지난 6

월 실시계획을 착수하고 16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4km의 도로가 2028년 개통되면 천사대교를 이용해 이 주민들도 육지 생활권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장산-신의, 도초-하의면도 도로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흑산도를 제외하고 13개 읍·면 모든 주민이 육지권 생활이 실현될 전망이다.

군은 신안 지역 연륙·연도교는 총 13개소가 완공됐고, 3개소는 진행 중이며 6개소는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진 신안이 육지화되면서 주민의 생활 여건만 좋아진 것이 아니다.

교통망이 구축되고 지역 특성과 자연 경관에 맞춘 관광지가 속속 완공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폐허가 된 낙도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관을 살린 박지도·반월도 퍼플섬 프로젝트는

세계 언론에도 주목을 받았지만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섬의 교통망 확충이 되고 '1섬 1정원 조성사업'이 착착 진행되면서 세계 최대의 섬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또 사계절 꽃피는 정원 등 예술·문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광로 거듭나자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연도 연륙교 건설에 박차를 가해 편리해진 교통망을 구축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예술 공간과 1섬1정원을 비롯해 세계 최대의 섬 국가정원을 조성해 전 세계가 탐내는 관광지로 '희망 신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이 육지와 섬을 잇는 교통망 체계 확충과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희망의 섬'으로 부상하고 있다. 위부터 목포-압해대교에 이어 압태, 자은, 팔금, 안좌의 중부권을 잇는 천사대교와 임자대교, 비금-도초를 연결한 서남문대교. <신안군 제공>



안좌도와 박지도를 잇는 퍼플섬의 야경.

## 사계절 꽃피는 '플로피아'

하의도 하굴 등 '1섬 1정원' 10곳 조성 중...6곳 계획도



안좌면 박지·반월도 퍼플섬 아스타.

신안군은 민선 7기에 플로피아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4개 읍·면별로 특색있는 테마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압해도 송공산 분재공원에 위치한 애기동백과 크로코스미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겨울철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꽃 애기동백은 독자정령 추위에도 강인함으로 피어오른다. 특히 눈이 내릴 때면 눈 속에 붉게 피어오른 그 자태가 신비스럽기만 하다

지도 선도와 병풍도는 수선화와 맨드라미가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팔금 철쭉과 금목서, 자은의 목련, 흥도 원추리도 저마다의 특색을 뽐내며 자연을 수 놓는다.

도초도는 녹색도시 우수상을 받은 100년이 된 716 그루의 가로수 '팽나무 십리길'이 무더위 방문객들을 시원하게 수국정원까지 이어준다. 환상의 수국정원에 들어서면 60여만 그루의 형형색색 수국들이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섬을 온통 보라색으로 물들인 안좌면 박지·반월도의 퍼플섬 10만여평의 라벤다와 아스타는 세계에서 주목받은 퍼플섬과 함께 새로운 볼거리로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현재 조성 진행 중인 곳도 임자 툄림과 흥매화, 중도의 태산목과 라일락, 비금도의 레드 백일홍, 장산도의 은목서 및 백색꽃, 하의도 하굴과 인동초 등 10곳이다.

또 고이도 조팝나무, 옥도의 작약과 모란, 매화도의 핑크색 꽃나무 등 6개 지역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미 조성된 8곳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세계 언론들이 조명을 할 정도로 성공적이다"며 "1섬 1정원이 이루어지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면 풍부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세계 최대의 섬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11월호

2022년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요?

특집

- 살고 싶은 내 집 짓기
- 집과 함께, 행복을 짓다
- 소박한 미소담은 '경당재' 지식강변 빛따스한 '화대정'
- 건축설계는 대화다

### 美路味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 도시 목표는 낭만 항구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 고하도 트레킹  
근대역사 문화공간들 / '목포의 눈물'과 유달산  
낭만 공간 '밀물다방' / 원초 감별사가 만드는 김 (주)신안씨푸드  
제방 명인의 정성 '그린하우스' / 목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 GWANGJU TOUR

연중 기획-광주 한바퀴

#11월 광주여행  
#전일빌딩245 남도관광센터  
#북함문화공간 '미로센터' & '김넷과'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백스푸'

### 에향 초대석

전통 증류주 '효요' 신화 쓴 광주주요그룹 회장  
**조태권**  
"문화적 가치 언젠가는 인정받게 됩니다"

기획·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① 기록과 기억, 예술의 발언 속에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다

클릭, 문화현장  
현대미술 거장 '무오전' 열린 전남도립미술관을 주목하다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공공조형물'  
"여기가 스페이스 워크" '철의 도시' 정체성 조형물로 꽃피워낸 포항

해외문화기행⑧-오슬로(상)  
자연과 예술의 환상 조합 '북유럽의 베네치아' 노르웨이 오슬로

문화 화제  
세 가지 색 광주체험 테마형 광주시티투어버스 출발합니다!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① 무등산은 인생 학교이며 우리 얼굴이다